

## 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

이유재 \_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1982년 당시 한국에서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나는 형과 함께 서독의 서베를린으로 이주했다. 이 해는 서독의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당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 재임기간: 1982-1998) 정부가 16년 장기집권을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우리 형제가 당시 서베를린으로 이주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7년 10월 서독 루르(Ruhr) 지역의 레클링스하우젠(Recklingshausen)에서 ‘파독광부’로 일을 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는 1979년 말부터 베를린에 정착하시게 되었다. 이후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신 아버지께서는 한국과 독일에 흩어졌던 우리 가족구성원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실 생각을 하셨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한국이 아닌 서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1981년에 어머니와

\* 글의 수정에 도움을 준 최원준 씨와 김지은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동생이 먼저 독일로 가고, 형과 나는 일년 후인 1982년에 독일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의 완전한 봉합은 아니었던 것이 이미 고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누나와 할머니는 그때 우리와 함께 같이 독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청소년기에 할아버지를 잃으시고 소년가장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머니와 일찍 결혼하셔서 아이 넷을 낳으셨다.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나의 돌파구를 찾던 중에 당시 '파독광부'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광부 경력자가 파독광부 선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강원도 장성에서 광부로 몇 년간 일을 하셨다. 그러다가 운 좋게 마지막 '파독광부' 그룹에 속해서 독일에 갈 수 있었다. 아버지 이후로 독일에 광부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한국의 해외개발공사는 1980년까지 독일이 요청할 경우 바로 파견할 수 있는 광부들을 미리 선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1977년 이후 독일로부터 더 이상의 광부 인력 요청은 없었고, 이후 선발된 한국의 광부 인력은 최장 3년 동안 독일로의 출국을 기다리다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전혀 정치적인 분이 아니셨다. 이주 초기에 아버지께서는 어느 한인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당시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다. 출국 이전에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으신 아버지에게 이것은 크나큰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소위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친교도 갖지 않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독일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가톨릭과 개신교 한인교회는 독일한인

광부 인권운동의 중심지였다. 한인 광부들의 제일 큰 투쟁은 1979년 말에 시작된 체류권 투쟁이었다. 시기상으로는 마지막 광부들이 1977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3년 계약이 종료되기 1년 전 즈음이다. 한인광부들은 먼저 자우어란트(Sauerland)에서 광부체류연장 추진위원회로 모였다가 나중에 레클링하우젠에서 본격적으로 독일한인인권협회를 발족한다. 그곳에서 한인들을 담당하는 어느 한 독일 가톨릭 신부가 한인광부와의 모임에서 한인광부 프로그램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와 거주 자유를 보장하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3년 순환 시스템으로 인해 독일한인 광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이 모임에서 용기를 얻은 한인 광부들은 이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체류권 연장 투쟁에 나섰다. 사실 한인 광부를 위한 “서독 광산에서 한인광부 임시고용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 zur vorübergehenden Beschäftigung südkoreanischer Bergarbeiter)”은 그 시작부터 구조적인 차별과 일상적인 차별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인 광부들은 가톨릭 노동청년회(Christliche Arbeiterjugend, CAJ)와 가톨릭노동자운동(Katholische Arbeitnehmer-Bewegung, KAB), 그리고 에센대학 기독교학생연맹의 도움을 받아 서명운동을 벌였고, 광산 본사와 광산 노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일간지와 공영TV에서도 한인 광부들의 입장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한인 광부들의 체류권 연장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인 광부들의 체류권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은 1980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장면이 독일공영 제1TV인



〈사진 1〉 휴식 취하는 파독 광부(연합뉴스)

ARD에 방송되었다. 이를 통해 서독 전역에 광주시민들의 민주투쟁과 신군부의 잔혹함이 낱알이 공개되었고 공론화되었다. 이런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여 결국 서독정부는 “한국 정치 상황의 변동에 근거하여” 서독

에 남아 있었던 한인광부 800여 명에게 무기한 체류권 및 노동 허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한-독 간의 ‘파독광부’ 프로그램의 종결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돌이켜보자면 한인광부들의 인권투쟁은 1964년 초, 첫 불법 파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12월에 첫 광부들이 파견되고 독일에 도착해서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한인 광부들은 노동환경, 임금,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3일 동안 불법 파업을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한인 광부들의 파업이 있기는 했지만, 1980년 파독광부 프로그램이 종결될 때까지도 한인 광부들의 요구 사항이 서독 정부에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묵살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광부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독의 복지체제를 이용하거나, 서독 정부의 이주 통제의 빈틈을 적극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작게는 유급병가를 통해 고된 노동을 피해 휴식을 확보하거나, 크게는 나의 아버지처럼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위해 서베를린이나 함부르크 같은 대도시, 심지어는 북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일상 정치의 방법을 통해 한인

광부들은 그들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파독광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고자 했다.

한인 간호사들은 광부들이 1979년 체류권 운동을 시작하기 2년 전인 1977년에 벌써 체류권 운동을 전개했다. 1977년 5월 서독정부는 ‘손님 노동자’로 온 간호사들의 3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들을 송환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때 이미 독일에서 10년 넘게 일한 간호사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서독정부의 강압적인 발표에 반발한 한인 간호사들은 서독에서 송환 반대 운동을 벌였다. 서베를린에서는 여성모임과 베를린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한인 간호사들이 197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교회의 날(Kirchentag)에 맞추어 11,019명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그들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당신들이 필요할 때 우리를 데려와 놓고 이제 버리려 하냐,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외쳤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베를린의 한인 간호사들은 1977년 7월 27일 베를린시 내무부장관 페터 울리히(Peter Ulrich: 1928-2011)로부터 서독에서 5년 동안 일한 사람은 무기한 체류권과 8년 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서베를린을 제외한 서부 독일과 남부 독일 여러 주에서는 1978년까지 한인 간호사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아쉽게도 동시기에 투쟁을 한 인도 간호사와 필리핀 간호사와의 연대는 없었지만, 결국 한인 간호사들은 독일 전국에 있었던 간호 이주자들의 체류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인 광부와 간호사의 체류권과 인권투쟁은 독일 이주사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동독에서

계약노동자로 일했던 베트남 노동자들이 체류권 투쟁을 하기 전까지, 한인 광부와 간호사들의 투쟁은 현대 독일의 이주노동운동사적 측면에서 집단적 체류권 투쟁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간호사들의 투쟁은 독일의 외국인 체류권법 자체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중에도 언급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노동이주 1세대의 투쟁 전통을 밝히고 기록하는 것은 독일 내 이주 한인 2세대의 인권투쟁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독일한인 이주사에서 한쪽에 노동이주자들의 인권운동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있었다. 1967년에 일어난 동백림 사건을 통해 독일한인 사회가 정치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조직된 정치운동은 다음의 두 역사적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제정이고 두 번째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이러한 독일한인들의 정치운동이 발현하게 된 계기로는 독일의 68 학생운동 이후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독일인 동반자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한인들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운동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자세한 것은 한정화의 글 참조). 1970년대에는 주로 한인 유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1980년대에는 비로소 독일 내 정착에 성공한 한인 이민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정착한 이후 체류권 문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사회와 직장 안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점

이다. 서독에서는 이주와 귀환으로 설명되는 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손님 노동자 이주체제가 1970년대 초에 오일쇼크와 함께 이미 종료되었다. 한인들이 1970년대 후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외였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부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서독 내에서 장기체류를 시작하면서, 가족 형성과 결혼 그리고 이주민 2세대들의 출산으로 인해 독일 사회 안에서 외국인 비율이 확연히 증가하였다. 콜 정부는 집권 16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3년 이후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독일이 이주 사회에 도달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콜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통합 정책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독일의 이민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독일에서 일상적으로 “어디에서 왔고 언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하고, 이민 2세대들의 학업 성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것이 독일의 사회적 위험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자,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이 언젠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외국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콜 정부 이후 사민당-녹색당 연정으로 집권한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 재임기간: 1998-2005) 정부가 이주노동자 1세대와 2세대를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독일 사회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기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귀한 시간이 흘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시점에 1970년대 말 집중적으로 이주자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한인들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관심을 돌렸고, 결과적으

로 독일 내에서 한인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해졌다. 한인들의 한국 민주화와 통일운동은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유 공간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연대운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소수자로서 한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시민권이 없는 독일에서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찾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나는 당시 외국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콜 정부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행복한 유년기를 독일 이주로 인해 빼앗겼다고 믿었다. 독일 사회가 나쁜만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에게 내심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바람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나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다짐했다. 사실 나의 부모님도 자식들의 학업만 완료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던 와중에 베를린 자유대(Freie Universität Berlin)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던 나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1년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낼 기회가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원치 않게 떠난 고향을 다시 찾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유년기의 목가적 고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내가 알던 한국도 그 사이 내가 변했던 것처럼 변해 있었다. 결국 그 순간 내가 어린 시절 독일에서 수없이 곱씹었던 결심, 떠났던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심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참에 1995년 겨울 1월 나는 내가 다니던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성문 밖 교회 청년회와 같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하는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구타 금지와 체불임금 지급, 여권 반환 등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성남 외국인 센터에서 일하는 한 목사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규정하였다. 네팔인들의 저항은 나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여러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주었다. 첫째, 내가 목격한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 문제는 한국이 이주 출발국에서 이주 목적국으로 변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둘째, 나의 견해로는 한국 이주민들이 독일에서 차별 받아왔던 것과 비교해서 한국 내 외국인들의 차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 셋째, 개인적으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한편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한국의 종교인, 청년,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한국에서 독일에 돌아온 이후, 나는 현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공간인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이곳 독일에 내 위치를 확정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독일에서 젊은 한인2세대들을 조직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문제의 해결을 같이 고민하고자 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베를린에서 친구들과 한인2세 조직 한가람을 만들었고 이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한가람은 작은 넋물들이 모여 큰 강을 형성하는 것처럼 다양한 2세대들이 모여 하나의 큰 광장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사진 2〉 1999년 한가람 팀



〈사진 3〉 2000-08호 『한가람』 표지

가지고 있었다. 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 출생한 독일한인 2세대들이 젊은 성인이 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있을 때였다. 비슷한 시기에 중부 독일에서 kyopo.de란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고, 북부 독일에서는 한인 ‘2세 네트워크’, 남부 독일에서는 kyopo-bw란 이민 2세대 조직들이 창립되었다. 한가람은 베를린 한인회보 8쪽의 지면을 빌려 독일어로 한인 2세대들의 광장을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독립적인 『한가람』 잡지를 만들었다. 이 잡지는 격월로 발간되었고 2003년까지 유지되었다. 주로 2세들의 경험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글을 쓰기도 하였다. 잡지가 조직의 구심 역할을 하였지만 세미나, 스포츠행사, 파티로 인해서도 그 전에 알지 못하던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서 독일한인 2세대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한가람을 통해 독일인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한 차별의 경험을 서로 나누었고, 또한 전체 생애사를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일종의 공감의 공간이 형성되어 그들

의 안전지대가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이 서로 만들어온 한인 2세대의 정체성은 ‘순수한’ 한인의 정체성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들이 바라듯이 한인 1세대의 조직을 (한인회, 한인교회 등) 이어갈 정체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아무도 답을 준비해 놓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는데, 한국과 독일에 동시에 거리를 두고 유머러스하게 독일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독일어를 상황에 따라 섞어 쓰는 것인데, 두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전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독일한인 2세대의 집단정체성이란 것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직을 통해 2세대 정체성이 형성되고, 표현되고, 구현되는 것을 관찰하기란 매우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당시 나는 베를린 자유대 철학과에서 공동체주의와 다문화주의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한가람의 풍경을 통해 필자는 베를린 자유대에서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2000년에 학업과 개인 사정으로 베를린을 떠나면서 한가람 회장단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 당시 한가람에서의 순간들은 나에게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다.

내가 한국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박사논문을 쓰고 있던 중, 나는 2005년에 있을 독일 노동 이주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위한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곳에 지원해서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 기회가 한인으로서, 또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넘어, 독일 사회를 대상으로 한인들의 역사를 알려야 하고, 이를 통해 이 독일 사회 내에서 나의 위치를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여겼

다. 이것은 독일 연방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쾰른 미술협회가 주최하고,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인류학과와 쾰른 독일이주자료센터가 협력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각각 예술, 학술, 역사자료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동독과 서독의 노동 이주를 포함하는 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위해 나는 독일 이주자료센터에서 2004~2005년 사이에 한 동료와 함께 한인 이주사 자료수집과 연구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모두 젊은 이주민 2세대로 구성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연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독일 현대 이주사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한 한인 이주사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 도록에 실린 한인 노동이주에 대한 논문 제목을 우리는 '전도된 개발원조'라고 지었다. 그것에는 이주자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막상 이 거대한 전시회가 시작되자, 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자였던 한인들의 역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적잖이 실망한 나는 오직 독일한인 이주사에 대해서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나는 과거 한가람에서 같이 한 친구들과 주로 한인 2세대인 미술가, 영화감독, 기자, 변호사, 학자 등이 모두 모여 '통합의 모범생'이란 제목 아래 미술/역사 전시회, 학술대회,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까지 구상하였다. 프로젝트를 위한 외부 자금 마련과 예산 처리를 위해서 비영리 법인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기존의 단체들과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몇 군데 알아보았지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가람에게는 사업의 규모가 부담스러웠고, 한인 1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인운동단체는 오직 한국으로 거의 모든 관심이 향해 있



〈사진 4〉 2008/01/27 코리엔테이션 창립식

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독일한인 2세대로 구성된 사단법인 코리엔테이션(korientation e.V.)을 2008년에 새로이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코리엔테이션은 오리엔테이션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주민과 다수 사회 간에 동문서답처럼 대화가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이름에 오리엔트(동양)와 코리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엔테이션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말장난이다. 1990년대 말 슈뢰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통합담론이 넓게 퍼졌는데, 당시 독일 내에서 주류 사회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통합되기만을 요구했고, 더 나아가 이민자를 결핍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 담론을 전복한다는 의미에서 주류 사회가 기대하는 통합의 모범생을

한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그려보자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한인 이주자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독일인과의 결혼 비율은 다른 이주민 그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한인 2세대들의 대학 진학율은 독일 평균보다 거의 두 배였다. 당시 독일 내에서는 소위 이민자들의 모범으로서 으레 한인을 제시하면서, 타 '문제아' 이주민들에게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커뮤니티 내에서만 결혼하고, 독일 회사에 취직하거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못하며 범죄행위에 연루되냐”면서 독일 내 한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이런 시각에 반하여 독일한인 이주자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실 열악한 조건에서 한인들의 노동 이주가 이루어졌고,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독일 내 체류권도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주 한인들은 그들의 직장과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온 몸으로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자식들인 2세대들을 성공적으로 독일 중산층에 진출시켰지만, 그 결과는 그들 또한 그들의 부모와 같이 독일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일종의 '유리천장'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우리 프로젝트는 독일인들과 독일 사회를 향해 그들이 스스로 변할 의지가 없으면서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이주민들에게 독일 사회로의 통합만 요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통합에 성공했다는 한인들조차도 여전히 이렇게 어렵다면, 하물며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이주민 집단들은 얼마나 더 큰 차별을 받으면서 이 독일 사회에서 견뎌야 하는가를 또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예로 독일에서는 교육과 계급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대략 80% 정도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에 반해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진 5〉 2009/10/15 나눔·분단·통일 전시회 일부



〈사진 6〉 2008/12/07 본대학 '통합의 모범생' 학술대회 2세 세션

노동자 부모의 자녀들은 20%만 대학에 진학한다. 사회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독일 노동자들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계급이 이주 노동자들이다. 기본적으로 독일 사회 안에는 계층과 민족 간의 사회 이동을 매우 어렵게 하는 구조와 문화가 내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슬픈 연구결과를 예를 들자면, 이주민의 높은 실업률의 한 이유는 독일 회사들의 인사부에서 외국계 이름을 가진 지원자들의 채용을 노골적으로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주민들이 자신의 의지로만 극복할 수 있겠는가? 2008년 베를린 일대와 튀빙겐대학교에서 이주청장과 관련 학자 등 관계자들을 워크숍과 학술대회에 초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09/2010년 베를린 신미술협회(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 NGBK)와 힐데스하임 예술협회(Hildesheimer Kunstverein)에서 열린 전시회는 '나눔, 분단, 통일(Shared. Divided. United)'이란 제목으로 한인 이주가 냉전의 틀 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서독과 남한 그리고 동독과 북한 사이의 이주 움직임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한국과 독일/유럽의 유명

한 작가들이 함께해서 전시회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시회 도록도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구상했던 이주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재정 확보 문제 때문에 실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추후에 영화 분야의 경우 2년에 1번 꼴로 열리는 베를린 아시아영화제를 주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통합의 모범생’은 그것의 전복적인 성격 때문에 오해도 있었다. 프로젝트를 향해 독일 내 이주민을 출신국가에 따라 서열화하거나 강압적인 독일 주류 사회에 아부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놀랍게도 독일 정부의 통합 정책에 비판적인 이주민 2세 단체가 당시에 그리 많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의 프로젝트는 빠르게 독일 사회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기대한 것을 넘어서 코리엔테이션은 2006년부터 매년 메르켈 수상(Angela Merkel, 총리 재임기간: 2005~2021)이 수상실에서 개최하는 ‘통합정상’ 모임에 초대받기도 하였다. ‘통합정상’은 정부기관, 언론, 고용주 단체, 노조, 스포츠협회 그리고 이주민 단체가 모여 이주민의 성공적 통합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주민 단체 내부 토론을 위한 이주민 단체 연방회의에도 회원이 되었고, 개신교/가톨릭과 노조 복지기관에서 곧잘 소홀하게 다루는 이주민 1세대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복지단체 창립을 위한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외부로부터 요구받는 역할과 의무는 코리엔테이션의 정체성 자체를 여러가지 의미에서 변화시켰다. 코리엔테이션이 갖고 있었던 좁은 의미에서 한인2세 단체로서는 더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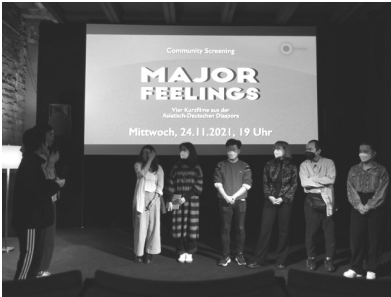




〈사진 7〉 2008/11/06 이주정상회의

의미가 없었다. 한인 이주와 이주민을 주제로 한 ‘통합의 모범생’ 프로젝트 종료 이후, 한인 이주사만을 갖고 코리엔테이션이 사회적 소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인 2세의 숫자도 제한적이고 연령대도 특정한 나이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동시에 베트남 2세가 눈에 띄었다. 1980년부터 동독에 계약노동자로 온 6만여 명의 베트남 이주민들 중 통일 이후 1만 6,000여 명이 독일에 남았다. 베트남 이주민 2세대들이 1990년부터 비로소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과거 동독시절에는 베트남에서 온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신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베트남 1세대들은 독일 통일의 격변기에 극우파의 테러를 받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베트남 2세대들은 학업에 좋은 성적을 보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사춘기에 접어든 베트남 2세대 젊은이들은 아시

아인으로서 한인2세와 유사한 차별의 경험을 하였고, 우리가 과거 한가람 시절에 했던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공통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베트남 2세들은 코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고, 이들은 이후 조직의 중핵으로 발전했다. 당시 코리엔테이션 안에는 이미 중국 출신, 일본 출신, 인도 출신 등의 이주민 2세대들이 여러 프로젝트들을 우리 한인 2세대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직을 아시아-독일인을 중심으로 새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단체 이름을 개명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였고, 코리엔테이션이라는 협회의 이름이 갖는 나름의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시아-독일인(Asian German)’이라는 개념은 독일에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이기 때문에 아시아-독일인을 단순히 이주자의 출신국가, 종족이나 종교 등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더 부각시키고, 이민 2세대들이 아시아-독일인으로서 스스로 문화적, 정치적 자아 표상을 가능하게 하여 독일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 풍부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코리엔테이션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다. 독일 사회 안에서 이주민 2세대들이 자기위치 규정과 문화적 자아표상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독일에서 경험한 인종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리엔테이션은 결성 초기보다 지금 훨씬 중요한 사회적 발언과 문화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에 만족했었다. 반면 지금은 훨씬 더 진보된 정치적 활동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반 아시아적 인종차별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급증한 시점에 코리엔테이션의 독일 내 정치적



〈사진 8〉 2021/11/24 MEGA 아시아-독일 디아스포라 단편영화 4편 발표회



〈사진 9〉 2022/05/20 MEGA 토크쇼

인 활동들이 더 부각될 수 있었다.

한인 2세대 단체에서 아시아-독일인단체로의 발전은 쉽지 않았지만, 늦어도 2020년 MEGA(Media Empowerment of German Asians)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MEGA 프로젝트는 연방가족부와 베를린시 ‘민주주의 살기(Demokratie leben!)’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데, 주로 젊은 이주민 2세대들이 기존 언론과 유튜브와 같은 신매체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전달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편 영화 제작, 팟캐스트 제작, 블로그 제작 등 MEGA 프로젝트가 젊은 2세대들의 새로운 언론 매체와 콘텐츠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미디어에 비친 아시아인의 상을 수정하고, 대체적인 상을 직접 만들어가자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 역사 내에 존재했던 반 아시아적 인종차별의 역사, 아시아-독일인들의 저항의 유산, 그리고 계급성이 강한 노동이주를 포

함한 다양한 이주 형태들을 밝히고 수집하는 활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형성되는 아카이브와 공공역사, 그리고 기억의 방식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극우 테러로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민들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동안 코리엔테이션에게 중요한 주제였다. 프로젝트의 학문적인 뒷받침을 위해 코리엔테이션은 미국의 Asian American Studies로부터 동기를 받아 현재 Asian German Studies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와 준비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학술적,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시도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코리엔테이션은 이제 문화, 미디어, 학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독일인들의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하였다.

독일한인 이주자들의 사회운동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인권운동으로 시작해서, 이후 한국과의 연대운동과 한반도 통일운동에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의 주체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독일 사회 안에서 이주민들의 인권 운동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과거 1세대의 단순한 체류권과 노동 허가의 문제를 넘어, 한인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시아-독일인 전반을 독일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동등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인권투쟁으로서 문화운동, 미디어운동, 정치운동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서구의 한복판에서도 매일같이 투쟁해서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이곳 독일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도 계속 싸워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